

한국 ITU-T 연구위원회 운영계획

오세순 / TTA 표준화본부 정보통신팀

김 선 / TTA 표준화본부 정보통신팀 팀장

I. 서론

지난 TTA의 표준활용실태 설문조사 과정에서 “국제표준화기구하면 떠오르는 기구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ITU를 뽑았다. 이렇듯 ITU의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고, 또 TTA의 표준화 활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TTA에서 ITU-T 활동의 이해가 없이 국내표준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ITU-T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본론으로 들어가 국내 ITU의 대응 업무를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ITU의 역할 및 그간의 국내 대응 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1865년에 창설된 유선통신, 전파, 방송 및 위성 주파수 등에 대한 국제 권고를 개발 보급하고 국제간 조정역할을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로, 국가간의 협력과 국가 사회·경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의 발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ITU 회원국간 협력을 유지하고 개발도상국에게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전기통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유용성을 증대, 보급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전기통신과 관련하여 범 세계적으로 정부 및 민간기구간의 조화로운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ITU 국제표준화활동을 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면서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화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1952년 ITU에 국가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988년 TTA의 출범과 함께 관련 대응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당초 TTA 설립시에는 국내 표준화위원회와 ITU 대응연구반이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ITU 표준화 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포럼과 3GPPs, IETF와 같은 사실표준화 기구의 출범은 국내 표준화위원회 환경도 많이 변화시켰다. 따라서 ITU위원회와 국내표준화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 표준화 체계를 통폐합하고 다양한 표준화 환경변화를 수용하며 국내 표준화위원회는 계속 발전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에 ITU 대응 업무가 다소 소홀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도에는 주파수자원을 관리하고 전파이슈를 다루는 ITU-R 분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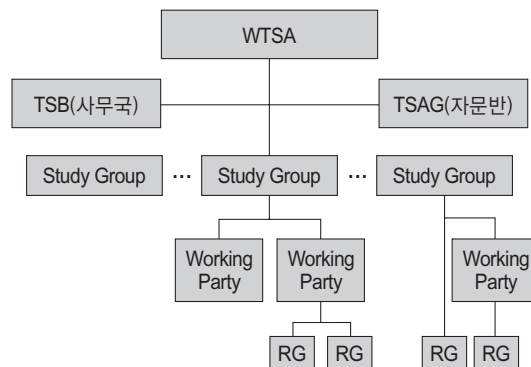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하에 국가 ITU-R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으며, ITU-T 분야 역시 요금, 번호체계 등의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통신제도 분야와 BcN과 같은 주요 표준화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표준의 신속한 국제표준 추진 및 국제표준의 신속한 국내표준도입 등 국제표준화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2004년도부터 ITU-T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요표준화 이슈에 대한 검토분석과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ITU-T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ITU-T 연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ITU는 크게 ITU-T, ITU-R, ITU-D 3개의 분야로 나누어지며, 이 중 ITU-T 분야의 표준화 활동은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WTSA :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를 중심으로 산하의 연구반(SG : Study Group)과 자문반(TSAG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에서 이루어진다.

2004년 5월 현재 ITU-T SG은 SG2, SG3, SG4, SG5, SG6, SG9, SG11, SG12, SG13, SG15, SG16, SG17, SSG의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SG들은 산하에 WG(Working Group), RG(Rapporteur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WTSA 회의는 4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 향후 4년간의 표준화 활동을 위한 SG 구성이 이루어진다. 마침 2004년 10월에 WTSA-2004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 향후 4년(2005 ~ 2008) 동안의 ITU-T의 표준화 운영방안 및 SG 재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국내 ITU-T 연구위원회는 이들 ITU-T 분야의 각 위원회에 대응되는 국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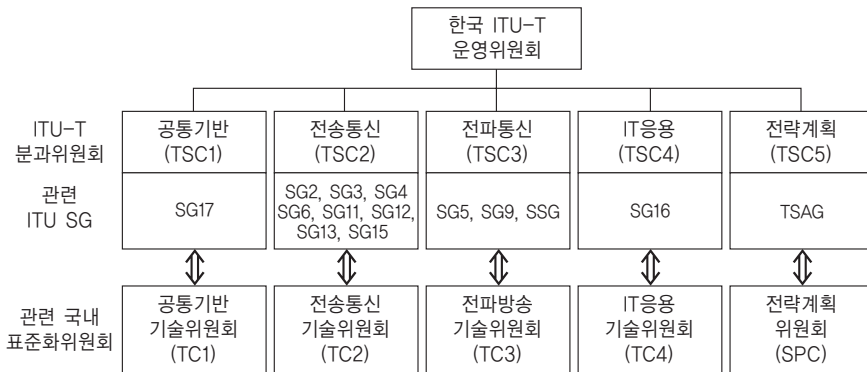


[그림 1] ITU-T 작업구조

응 조직을 구성하고, ITU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1. 한국 ITU-T 연구위원회 조직

위에서 설명한 ITU-T 조직에 대응한 한국 ITU 연구반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ITU의 WTSA에 대응되는 한국 ITU-T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각 분야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TSC : itu-T Sub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TSC를 보면 공통기반, 전송통신, 전파통신, IT응용, 그리고 기획분과위원회로 국내의 기술위원회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국내표준화 활동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분리하여 이원화시키지 않고, 국내표준화위원회에서 국제표준화 업무를 병행해서 처리하고 국내표준화와 국제표준화와의 연계를 최대한 강화하기 위함이다. 분과위원회 산하에 국내 연구위원회(SG)는 별도 공식위원회로 구성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관련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시 해당분과위원회 산하에 준비반 형태로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ITU의 각 SG별 국제표준화 대응업무는 국내의 해당 프로젝트그룹(PG)에서 담당토록 하였다.



[그림 2] 국내 ITU-T 대응연구위원회

한국 ITU-T 운영위원회는 ITU-T SG별 국내전문가 1인 및 한국 ITU-T 분과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ITU-T 연구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검토, ITU-T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APT표준화프로그램위원회(ASTAP) 등의 회의에 필요한 대응전략 수립 및 주요 이슈별 국가 대응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국내 관련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SG 회의별 국내 참가단 구성 및 기고서 작성·심의, 연구과제별 우리나라의 입장정리 및 주요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AAP, TAP 절차에 따른 ITU-T 권고 및 연구과제검토, 기술회보(Circular letter) 및 Question에 대한 국내입장 정리, 그리고 담당 과제별 history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하에 대응연구반 및 국제회의준비반

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2. 2004년도 중점 추진사항

위에서는 ITU-T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별 주요임무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여기서는 위에서 소개한 내용 중 2004년도 중점 추진 사항들을 바탕으로 각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소개토록 하겠다.

가. ITU-T 권고에 대한 국내/국제 표준 연관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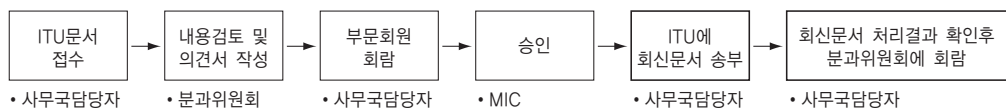
각 SG별 Question들과 여기에서 파생된 권고(안)들에 대하여 주요 내용 분석 및 국내 표준 및 기술기준과의 비교 분석표를 작성하여 상이점을 분석하고, 국내표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 제·개정을 제안한다.

나. ITU-T 중요 연구과제에 대한 대응 연구 수행

ITU-T 연구과제 중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제별 국내 대응방안 마련한다. 중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및 연구위원을 활용하여 국내표준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계 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수행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내연구활동의 결과가 국제표준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각 연구분과에서는 국제회의에 제출한 기고문의 처리결과와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람(e-mail 가능)한다.

다. ITU-T 회람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검토 및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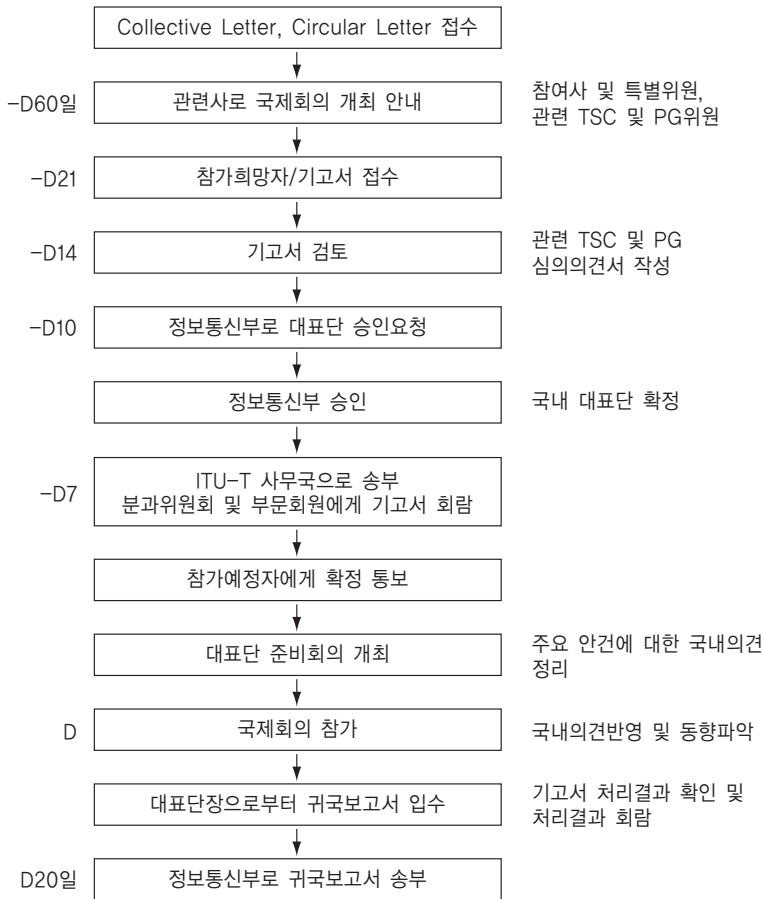
TBS Circular letter, AAP Announcement 등 ITU-T 회람문서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로 배포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의 검토의견서를 정보통신부를 거쳐 ITU에 회신한다. 이 때, ITU-T 부문회원(Sector Member : KT, 데이콤, LG전자, 삼성전자, ETRI 등 5개사)에게 그 결과를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회신문서에 대한 ITU-T의 처리결과를 확인 후 분과위원회에 회람하여 필요한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AP Announcement 는 월 2회 발생하여, 3주 이내에 응신해야 한다.



[그림 3] AAP 및 TAP 처리절차

라. 국제회의의 참가 및 지원

ITU-T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정보를 해당 분과위원회 및 회원사에게 공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국제회의의 참가를 독려하고, 우리나라 각 계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여 국가 기고문 검토 및 개발을 통해 국제회의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회의에서 거론될 주요 의제에 대한 동향파악 등 철저한 참가 준비를 하며, 국제회의의 참가에 필요한 기고문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및 필요시 외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한다. 또한, 국제회의의 참가 후 참가보고서를 웹상에서 배포하여 관련 산업계, 전문가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국제표준화회의의 준비반 구성시에는 국가대표단 뿐 아니라, 필요시 부문회원으로 참석하는 참석자들도 참석토록 하여, 국가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내 전문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토록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토록 한다.



[그림 4] 국제회의의 참가절차

마. 우리나라 원천기술의 적극 제안 및 산·학·연 협력체계 가동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 및 표준화를 위한 공조적 협력체계 유지를 통하여 BCN, WIPI, 2.3GHz 휴대인터넷 등 국내선도 산업의 원천 기술을 국제표준화에 반영하고 번호체계, 요금 및 통신제도 등과 관련한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바. 한국 ITU-T 연구위원회 활동 홍보 강화 및 표준동향 정보 제공

연구위원회 활동사항 점검 및 연구위원간의 정보공유를 위하여 총회 및 연구동향 워크숍 개최(년 1회)하고, WTSA-2004를 대비하여 필요시 발표회를 개최(ETRI와 공동 추진)한다. 또한, 한국 ITU-T 연구위원회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ITU-T 권고, 연구과제 채택, 승인 등 현황 자료와 관련 국제권고 제·개정에 따른 국내표준의 반영 현황자료를 제공한다. 연구위원 상호간 의견 교류를 위한 게시판 및 메일 Reflector 기능을 활성화하고, ITU-T WTSA, SG/WP별 국제회의 참가절차 안내 및 참가자 정보, 기고서 제출현황, 참가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 ITU-T 연구위원회 및 WTSA 준비반의 연구활동에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결론

2004년도는 한국 ITU-T 연구위원회 활동의 원년으로 삼아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ITU-T 대응 활동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ITU-T 대응 활동들이 국내 정보통신 기술 표준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제표준에 신속한 반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정보통신 분야 국제 표준화활동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참여와 기술 표준 관련 다자간 및 국가간 협력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표준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ITU-T의 부문회원(Sector Member)을 비롯한 관련 산업체 및 학계, 그리고 국내외 표준화 전문가들로부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역량을 하나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의 ITU-T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미흡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고, 업계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한국 ITU-T 연구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국내표준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ITU-T 사무국에서 발생하는 문서의 종류

- Circular letter : 연구과제에 대한 질문서, 차기년도 회의일정, 자료수집 목적
특별연구과제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자의 지명의결
신 과제 제기에 대한 의결서 제출 요청, 의장단 연락처 및 호텔 안내
- Collective letter : 회의개최 통지 안내, 기고서 제출 요청, 회의의제, 연구과제 등
- Contribution : 회의 중 각 SG에 의뢰된 연구과제에 대해 각 국 및 ITU 가입단체에서 제출한 의견
- Report : ITU 사무국이 작성한 회의 의사록
- Operational Bulletin : 코드할당 관련 사항, 기타 공지사항 등
- AAP Announcement : AAP 절차에 따라 동의된(Consented) 권고에 대한 의견요청 